



산란계군 증가와 소비감소 등으로 약보합세 전망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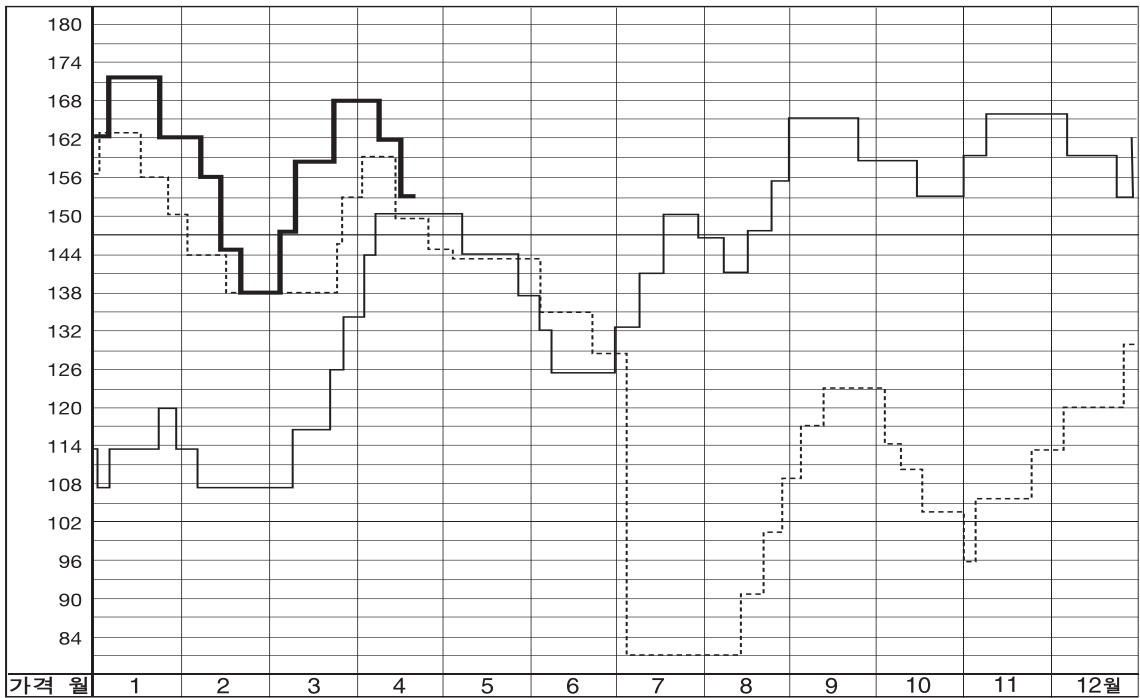
고병원 AI발생으로 인해 산란실용계 470여만수가 매몰처리 되었고 이에 따른 계란 매물과 계란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산지에서 계란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형할인마트의 할인행사 계획과 학교급식 등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업계에서는 당분간 난가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유통업체에서도 이전 AI발생 종식 후 품귀현상으로 계란가격이 높게 상승하였던 경험과 다양한 수요 증가요인을 바탕으로 일부업체에서 계란 비축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면서 산지 상승 분위기를 더욱더 부추겼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른 계란가격의 부담으로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최근 식품과 음료, 생선, 과채류 등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대체 식품으로 즐겨찾던 계란도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AI로 인해 계란의 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었다. 더불어 일부 언론사들에서는 AI발생 농가에서 사육한 개·돼지 감염에 대한 보도로 계란, 가금산물, 돼지고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증식시키고 산란실용계의 대규모 매몰로 인해 난가는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금술란 등이라는 수식어를 부쳐 소비자들의 외면을 더욱 부채질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장경영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 자료분석

지난 3월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29,000수로 전월(5,160수)대비 46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18,000수)대비 61.1% 증가하였다. 3월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2,635천수로 전월(3,842천수)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3,819천수)대비 31% 감소하였다. 2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4,718톤으로 전월(28,437톤)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5,458톤)대비 2.9%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68,545톤으로 전월(192,207톤)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155,396톤)대비 8.5% 증가하였다. 2월 산란종계사료는 5,220톤으로 전월(5,848톤)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5,811톤)대비 10.2% 감소하였다. 한편 1월 산란노계 도태수수는 2,532천수로 전월(2,102천수)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전년(3,176천수)대비 20.3% 증가하였다. 올해 1/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총마리수는 6,457만수로 전분기(6,482만수)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4,891만수로 전분기(4,887만수)대비 0.1% 증가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사육수수는 690만수로 전분기(724만수)대비 4.7% 감소하였으며, 3개월미만 사육수수는 876만수로 전분기(871만수)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부활절 특수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산지에서의 계란구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환우 계군의 생산가담도 차츰 증가하면서 체화물량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산란계 병아리의 과잉입식으로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AI 살처분 인하여 산란계 사육수수는 감소하였지만 농장 규모화와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로 계란시장은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약세권에 들어선 것은 아니나 부활절 특수 이후 계란 소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세는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월에서 3월초까지 환우에 가담하였던 계군의 생산가담이 가시화 되면서 차츰 과잉생산이 불가피한 만큼 5월 난가는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산란노계가격이 크게 상승해 있으므로 도태시기를 적절하게 잡는 것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병원 AI 종식 후 산란계 병아리 입식이 시작되면 산란계산업은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2-- 2013- 2014-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3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29,000	2,635	25.4	176.7	1,172	1,570
4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5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6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8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9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10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11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12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계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